

3.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통상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지는 전부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이 단순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1) 라는 것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설혹 하나님이 쓰라고 하셨다 하더라도 진짜로 쓰라는 대로 받아 쓴 것인지 혹 기록한 그 사람의 개인 의견이나 사상이 가미 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또 합리적인 분이라면 인간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내려 주시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라는 무모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당신이 직접 쓰게 한 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로 하여금 대중들을 광야에 다 모이도록 한 다음 그들이 확실히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큰 책을 떨어뜨리는 기적적인 광경을 보여준다고 합시다. 그 엄청난 광경을 본 사람 중 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 년쯤의 세월이 지나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해 줄 때 아마도 50% 정도 밖에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000 년 후쯤의 자손들은 처음 상황을 아무리 실감 있게 설명해준다 해도 거의 100%가 ‘신화’ 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 생각해봐도 몇 천 년 먼 훗날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자기의 메시지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뾰족한 방법을 생각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참으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 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인류의 역사를 ‘예언’ 이라는 형태로 미리 기록하게 하시고는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명 18:21),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인간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기록하게 하시고는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성취 되었는지 연구해보고 그대로 되었으면 믿으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염병을 예언 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와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렐 28:8)

아직 과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는 ‘저절로’ 또 생물학계에서는 ‘본능’ 이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점점 발달하여 그 이유들이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저절로’ 나 ‘본능’ 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떨어져 혼자 짹짹 돌고 있는 손목시계를 발견하고는 쉬지 않고 돌고 있는 시계 바늘의 원리를 새끼개미가 어미개미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 하늘을 날고 있는 거대한 여객기를 보고는 새끼 소가 어미 소에게 저렇게 무거운 것이 어떻게 나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엄마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절로란다.’ 내가 혼신의 힘과 정교한 과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일생일대의 작품으로 컴퓨터라는 것을 발명했는데 그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어느 사람이 학설 발표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대한 최대의 모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롬 1:20).

짐승과는 달리 의문과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써의 두뇌를 인간들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개미나 소와 같이 ‘저절로’ 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는 무지한 동물

의 차원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요 결과적으로 자기를 창조한 조물주를 모독하는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매일 매일의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만들면서 쉬지 않고 어디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자연계도 어딘가를 향해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미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작은 두뇌를 가진 인간들은 ‘저절로’ 라고 간단히 넘겨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가 보기엔 ‘저절로’ 라고 생각되는 일 년에 일초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제작된 손목시계나 소가 보기엔 ‘저절로’ 라고 생각되는 정교한 과학 법칙에 의해 하늘을 날고 있는 점보제트기와 감히 비교될 수 없이 정교하게 운행 되고 있는 우주의 운행이나 인간역사의 흐름들을 단순하게 ‘저절로’ 라는 표현으로 넘겨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미신적인 발상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화의 제작 과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그 스토리가 ‘저절로’ 흘러가는 줄로 알고는 다음 장면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손에 땀을 쥐며 초조해 하지만 각본을 미리 읽어본 사람들은 진행이 이미 쓰여진 그대로임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초조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까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기록해 놓으면서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지를 따져보고 그렇지 않거든 믿지 말라는 자신 있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찾아 따져 봐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사실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4. 신화 같은 창세기도 사실이란 말인가?

역사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우선 성경을 열자마자 첫 장부터 나오는 믿기 어려운 몇 가지 것들부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진실’ 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신화 같은 얘기들이 많이 등장 하는데 만약 그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성경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논하려는 교과서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창조나 과학적인 면은 단 몇 줄로 간단히 넘겨져 있어서 구체적인 것들을 알기는 어려운 일이지는 하지만 몇 가지 점들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을 6 일 만에 창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24 시간 하루의 경직된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통상 낮과 밤이 한번 바뀌는 24 시간을 하루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일 뿐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밤이 6 개월 낮이 6 개월로서 밤낮이 한번 바뀌는 데는 1 년이 걸립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천 년이 ‘하루’ 로 표현 된 것과 같이 이것은 어느 한 기간의 단위로 보는 견해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따라서 현대과학의 추정대로라면 창세기 1 장에 기술된 ‘하루’ 는 아마도 몇 십 억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의견일 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24 시간 하루를 주장하는 young earth creationism 견해도 많은데 어느 견해를 따르건 성경 기록의 근본 목적인 인간의 ‘문제’ 해결에는 하등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우선 처음 지구가 창조 될 때의 상태는 현재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 1:7) 즉 처음 창조될 당시는 하늘 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 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의 기록을 보면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 졌더라.” (창 7:11)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던 물 층이 다 쏟아져 내려 높은 산꼭대기까지 다 덮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부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창 8:22)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기후나 자연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꺼운 물 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가정 한다면 보온병이나 농가의 그린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여 지구상 어느 곳이나 온도가 일정하게 따뜻하고 외계로부터의 유해광선이 차단되어 생물체의 성장이나 건강상태가 지금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추정입니다. 현재 얽은 오존층이 유해광선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의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900 세가 넘도록 살았는데(창 5:1-32) 홍수 이후 수명이 갑자기 400 세 그리고 중국에는 10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100 여세로 줄어든 것을 보아도 역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 벨렉 때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 10:25, 대상 1:19)

그 기원이 생명체의 변화로 인해 생성 된다고 믿어지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동 식물들의 화석들이 북극 남극 할 것 없이 지구상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런 변화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의 위치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이었다고 (창 2:14 NIV, 현대인의 성경) 기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역인데 현재는 거의 사막화 되어 있어 생명체가 거의 살 수가 없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은 그 언젠가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었으며 한때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켜 지하로 묻혀 버렸다는(겔 31:16)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5.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대로 신이 확실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하나님’ 이 그 신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성경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과 차별화 하는 것에 대해 늘 의문과 불만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특혜를 독차지하는 민족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방인’ 이라 하여 자기들 보다 한층 하등으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따져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여 그저 ‘숙명’ 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내가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회교의 알라 만이 유일신이라 하여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것이고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힌두교가 참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인데 어쩌다가 한국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미국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옴에 따라 기독교에 접촉되어 지금 기독교인이 되어서 내 종교만이 참 종교라고 주장하게 된 숙명적인 것이라고 생각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얘기를 듣던 중 ‘선민’의 참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급을 잘 통설하기 위해 담임선생이 한 학생을 선택하여 앞에 세워 벌을 주는 경우 그 선택 받은 한 학생은 나머지 59 명을 위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 선택된 오히려 불행한 학생이지 선생님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지구의 한 “중앙에 거하는” (겔 38:12)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명 7:7) 민족을 택한 것이 곧 유대인입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그들이 대신 모진 고난과 학대를 받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선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지구의 배꼽’ - 지구 땅덩어리 한 중앙에 위치한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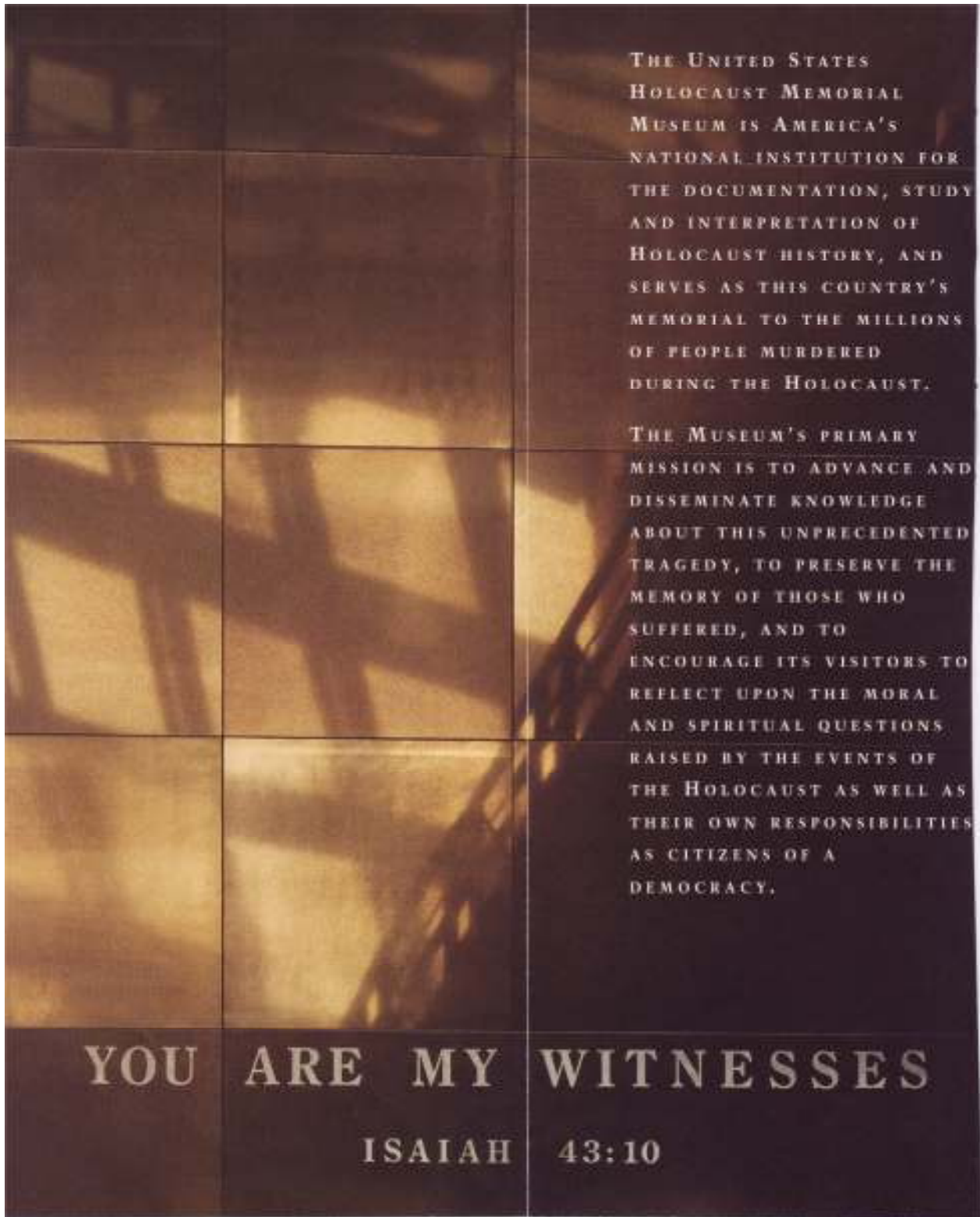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주된 목적은 뒤에 언급할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라 하는 인물을 탄생 시키려 하심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증거 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몇 년 전 Washington, DC 에 있는 유대인 대 학살 자료가 전시 되어있는 Holocaust 박물관을 방문했었는데 그 박물관 건물 외벽에 큰 글자로 “You are my witness”(너희는 나의 증인)(사 43:10)라고 써진 것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딴 교파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판사자신은 그 범행 장면을 전연 본 일이 없지만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증인인 유대인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지켜 행하면...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명 28:1), 반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명 28:15)라는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꾸며 나가는데 구약에 복잡하게 기록된 그들의 역사들은 한마디로 이 조건들대로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들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이렇게 “멸망” 시켰고 다시 회개했을 때는 회복 시키셨다는 역사의 반복입니다.(사 2:11,3:7,4:1,6:1)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사 44:6,7)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내가 말 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이요 경영 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사 46:10,11)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Washington D.C Holocaust museum 벽에 써있는 “너희는 나의 증인”)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 23:19)

위에서 언급한대로 미리 기록된 예언들을 연구하고 또 그 예언대로 되었는데 이를 보기 위해 역사를 공부하여 비교해보아서 과연 그대로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줄로 믿고 만약 기록된 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기록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리라” (명 18:20)고 자신 있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참으로 사실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 지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선민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찾으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필수 과정입니다.

6. 이스라엘 역사의 개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 12:1,2)

지금으로부터 약 4,000 년 전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라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를 조상으로 하여 메시아를 탄생시킬 한 민족을 이르게 하시니 현재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라는 약속과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나이 늙도록 아이를 생산치 못함으로 결국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아랍의 지류를 이루면서 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탄생합니다.

그 후 이스마엘이 열 네 살쯤 되었을 때 본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혈통을 통해 유대인이 시작되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당시 두 아들간의 가정 분란이 끈이 질 않았었는데 구약에 기록되어있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은 그 분란의 연속이고 오늘날의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중동 사태도 그때부터 시작된 두 아들간의 집안분쟁이 4,00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처의 아들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 열한 번째인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결국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 갔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됩니다. 그

후 요셉은 가나안지방에 살고 있는 70 명쯤 되는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집단 이주 시키고 그 후 400 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곱의 자손 즉 유대인은 남자 장정만도 60 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집트인들의 노예로써 고역에 시달리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이 과정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며 홍해를 건너 40 년간의 광야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 있을 이때에 모세를 통해 십계명 등 율법을 받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어 정착하게 되는데 약 1,500 년이 지난 후인 지금으로부터 약 2,000 년 전 예수가 태어나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인 자기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자나 깨나 그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보니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은 불품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여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예수가 죽은 지 30 여년 지난 후인 서기 70 년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계속 항거해온 유대인은 로마의 Titus 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고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여러 달 동안 모든 보급을 차단한 결과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에는 심지어 자기들의 애들까지 잡아먹으면서 버티었지만 결국은 대부분이 굶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칼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133 만 명 이상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국외로 추방명령이 내려져 이때부터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 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들이 추방당한 이후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인들이 차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쫓겨나 흩어질 뿐 아니라 어디서나 끈임 없는 학대와 학살을 당해 왔었는데 몇 가지 예로 AD115 년 로마 하드리아안 황제에 의해

58 만 명이 살해당했고 그 후에도 거의 기독교화한 유럽 각국의 황제들이 AD300-700 년까지 유대인 근절 정책을 써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고 AD1096 년과 1146 년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 하여 발견하는 대로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AD1144-1267 년 동안 독일과 영국에서 유대인 전멸 영이 내려졌고 AD1348 년에는 흑사병이 유행하여 유럽에서만도 5 천만 명이 죽어갔었는데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은 결과란 소문을 퍼뜨려 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 하였습니다.

AD1492 년 8 월 2 일에 거의 전 유럽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그 다음날인 8 월 3 일에 Columbus 라고 하는 유대인이 피난 항해를 시작 하여 결국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2 차 세계 대전 중 히틀러에 의해 600 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생생한 실지 역사입니다. 2 차 대전 종전 후 1948 년에 5 월 14 일 UN 에 의해 독립이 되어 1,900 년 만에 다시 본토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함으로써 그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이 시작 되어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측과 빼앗으려는 측의 쟁탈전이 지금까지도 매일 매일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0 년 만에 돌아온 그들이 이제는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그들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측과의 마찰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끄러운 중동 문제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이삭을 잡아 제사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 바위 위에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이 있는 곳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또 그곳은 예수께서 활동 하셨던 무대로써 기독교인들 역시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돌 하나 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 24:2)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떠난 이후 회교 사원이 지어졌는데 그 곳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하여 메카, 메디나와 더불어 그들의 삼 대 성지 중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곳이 분쟁의 핵심이 되어 있으며 중국에는 그 곳 때문에 인류 마지막 전쟁이 발발하게 되리라고 예언되어있는 ‘세계의 화약고’ 인 것입니다.

TV 뉴스를 틀기만 하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분쟁의 핵심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또 그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회복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이나 그들의 자존심이 걸린 그들의 옛 성전 자리에는 수치스럽게도 회교사원이 황금빛 돔을 자랑하며 버젓이 서있어 그들은 감히 발도 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서쪽 벽인 통곡의 벽에까지 밖에 도달할 수 없어서 그곳에서 오늘도 수치의 상징인 회교사원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성전이 재건되는 날이 오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입니다.